



박소현의 섹.시.토.크

J는 수영장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다니는 자녀반 수영팀에서 남편은 군계일학이었다. 수영실력도 좋았지만 뛰어난 몸매가 그 실력을 빛내주었다. 남편이 물살을 가르기 시작하면 발차기를 멈추는 여자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런 남자가 저녁을 먹자고 했으니 마다할 이유가 있겠는가. 수영강습 후 가진 저녁식사는 늦게까지 이어졌고 곧 레이트로, 결국 결혼으로까지 이어졌다. 결혼을 해 보니 남편은 매사에 정확한 사람이었다. 얼마나 정확한지 차계부만 봐도 험에 알 수 있다. 자동차 정비 기록, 엔진오일 교체 시기를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은 기본이고 기름 넣을 때마다 얼마나 넣었는지, 주행기록은 얼마인지 기록할 정도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J는 남편이 숫자에 민감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남편은 숫자로 기록하고 표현하는 것을 좋아했다. 가령 ‘길이 안 밀려서 빨리 갔어’ 같은 말도 ‘시속 60킬로로 평소 10분 걸리는 길을 5분 만에 갔어’라고 표현하는 것을 좋아한다. 또 그런 기록들을 모아 자기만의 통계 표를 갖는 것도 좋아했다.

지난 주말 결혼 일주년을 맞은 두 사람은 오붓한 와인 타임을 즐겼다. 술이 오른 남편은 큰 비밀이라도 털어놓는다는 듯 말했다.

“사실 남자 수강생들끼리 여자를 몸매에 점수를 매겼거든. 근데 당신 점수가 제일 높았어.”



“그래서 데이트 신청 한 거야?”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영향을 안 미친 것도 아닙니다.” “점수 매기는 거 당신이 하라고 한 거지?”

“어떻게 알았어?”, “당신은 왜 그렇게 점수 매기는 걸 좋아해?”

“객관성을 띠게 되니까. 당신 몸매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점수화하면 좀 더 객관

화 되는거야. 물론 다른 사람들 생각도 점수에 포함되니까 더 객관화되고.”

“그거 성희롱이야. 여자 입장에서는 불쾌하다구.” “알아. 그러니까 결혼하고 1년이나 지나서 밝히는 거 아냐.”

“사실 나 당신이랑 잠자리하고

점수를 매겨”

“그럼 나도 점수 매길게

당신도 한번 당해 봐”

J는 화를 더 낼까 하다 그쯤에서 그만두었다. 그런데 뛰어어 남편의 폭탄 발언이 쏟아졌다.

“사실 나 당신이랑 잠자리하고 난 뒤에도 점수를 매겨.” “뭐?”

“그냥 오늘 섹스는 100점 만점 중에 80점이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평균을 내보면 우리 부부의 섹스 라이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것 아냐.” “평균 내서 점수가 낮으면 뭐 바람이라도 피려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함께 대처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걱정 마. 지금까지 평균점수가 아주 좋으니까.”

J는 갑자기 소름이 카지면서 남편에게 점이 떨어졌다. 지금까지의 섹스를 아래 몰래 기록해 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정나미가 떨어졌다.

“세월이 지나면 성생활 만족도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굳이 기록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안 떨어질 수도 있지. 또 떨어진다 싶으면 더 노력하면 되고.”

남편은 필사적으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J는 그 모습은 꼭 중년의 남자가 자진 절대 늙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 좋아. 그럼 나도 점수 매길게. 키스 실력은 60점, 가슴 만지는 기술은 50점, 이런식으로. 당신도 한번 당해 봐. 얼마나 기분 나쁜지.”

J가 쏘아붙이자 남편은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지만 J는 알고 있었다. 남편이 점수 매기기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말이다.

〈연애 칼럼니스트〉

검색결정 키워드

검색

연예인 응원단 국고 2억 낭비 ‘입방아’

또다시 ‘묻지마 살인’이 발생해 네티즌을 경계 했다.

지난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고시원에서 30대의 남성이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사람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둘러 6명이 사망하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부검결과 사망자 6명 중 5명은 흉기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었다.

경찰 조사에서 짐씨는 “살기 싫어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죽은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진술해 ‘묻지마 범죄’에 대한 네티즌의 논란이 뜨거웠다.

지난 8월 베이징 올림픽 응원에 나섰던 ‘연예인 응원단’이 2억여원의 국고를 낭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네티즌의 입방아에 올랐다.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아 베이징을 다녀왔던 ‘연예인 응원단’은 열흘 동안 2억원이 넘는 돈을 사용했다.

‘연예인 응원단’은 방송인 강병규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안해 만들어진 것으로 임성훈, 김용수, 윤정수, 세연, 현영 등 연예인 21명과 수행인 21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하룻밤에 145만이나 하는 5성급 호텔에 머물며 숙박비로만 1억원을 지출하고 개인적인 용도에도 돈을 사용했으면서도 정작 한국 선수들의 주요 경기 표를 구하지 못해 TV를 보며 응원하는 등 10일 동안 8경기 만 응원을 나선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가수 겸 배우 이정이 해병대에 자원 입대해

화제가 됐다. 이정은 지난 20일 경북 포항에 위치한 해병대 훈련소에 입소해 군생활을 시작했다.

얼마 전 4집 앨범을 내고 활동에 들어갔던 이정은 지인들에게 정확한 입대 날짜를 알리지 않은 채 깜짝 입소를 하면서 검색어 순위에 등장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지난 20일 해병대에 자원 입대하면서 네티즌 사이에 화제가 된 가수 겸 연기자 이정.

굿모닝 잉글리쉬 <1174>

That'll teach her

그것은 그녀에게 교훈이 되었을 거다

A : Mary said she hated ‘Predator’. It scared her to death.

B : How did she get into the movie? It rated R.

A : I guess she sneaked in.

B : That'll teach her.

A : 메리는 ‘악탈자’라는 영화를 정말 싫어하더라. 그 영화 때문에 놀라 죽을 뻔 했나 봐.

B : 어떻게 그 영화를 보려 들어갔을까? 그 영화는 준 성인 영화인데...

A : 아마 몰래 들어갔겠지.

B : 그것은 그녀에게 교훈이 되었을 거야.

* predator : 악탈자

* scare : 놀라게 하다. 위협하다

* R.[영화] = restricted 준(準) 성인용

《17세 미만은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

* rate : 등급을 매기다

* sneak : 몰래 들어가다, 살그머니 들어가다

오하요우 니흔고 <1174>

まあまあ

그저 그래

A : このマンガおもしろい?

B : まあまあ。でも、にんきあるって。

A : ジャ, キョウかしてくれる?

A : 이 만화 재밌어?

B : 그저 그래, 그래도 인기 있대.

A : 그럼, 오늘 빌려줄래?

* ~てくれる?: ~해 줄래?

* おもしろい: 재미있다

* にんき(人氣): 인기

* かす(貸す): 빌려주다

니하오 쟁구워 <251>

我从马尼拉来。

나는 마닐라에서 왔습니다

A: 你从哪里来?

nǐ cóng nǎlǐ lái

你从哪里来?

B: 我从马尼拉来。

wǒ cóng mǎnlā lái

我从马尼拉来。

A: 马尼拉怎么样?

mǎnlā zěnmeiyàng

马尼拉怎么样?

B: 马尼拉很大, 人很多。

mǎnlā héng dà rén hěn héduō

马尼拉很大, 人很多。

A: 당신은 어디에서 찾습니까?

B: 저는 마닐라에서 왔습니다.

A: 아닐리는 여행하니까?

B: 아닐리는 매우 크고 사람들도 많습니다.

마닐라 [mǎnlā] 마닐라

怎么样 [zěnmeiyàng] 어떻습니까?

한자 이야기 <891>

孤掌難鳴(고장난명)

외로울 고, 손바닥 장, 어려울 난, 울 명

고장난명(孤掌難鳴)은 한 손바닥으로는 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뜻으로, 혼자서는 일은 이루기 어려움을 비유한다. 부정적으로 맞서는 사람이 없으면 싸움이 되지 않음을 비유하여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고 하거나, 또는 독장난명(獨掌難鳴)이라고 한다.

이 말은 ‘한비자(韓非子)’의 공명권(功名編)에서 유래하였다. 법가(法家) 사상가인 한비자는 공명(功名)을 이루기 위해서는 군주(君主)는 신하(臣下)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신하는 마음을 합하여 군주에게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즉 명분(名分)과 실리(實理)가 서로 겹지 않아서는 군주와 그림자로 서는 것과 같이 신하와 군주는 지향하는 바는 같지만 역할이 다를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군주의 걱정은 호응(應和)함이 없는 것이다. 한 손으로 흘로 치면, 제 아무리 빨리 쳐도 소리를 낼 수 없다.(一手獨拍, 離疾無聲) 신하의 일체는 일체를 이루지 못함에 있다. 오른손은 둘그 라미를 그리고 왼손은 네모를 그리면 두 가지 모두 이를 수 없다. 따라서 천하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군주가 북채가 되면 신하의 북쳐럼 되어야 한다.